

중기부, 올해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회복·성장 위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인공지능 등 심층기술 집중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8일 참례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

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저리(1%p이하보전) 특례보증을 통한,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백만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등 유망 심층기술(답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과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트랙)을 신설하여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9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건설협회 전북,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등 25명 참석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9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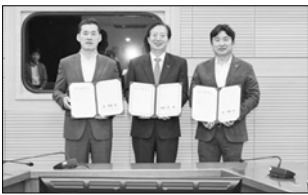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원로회원·윤리위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새정부에 신규물량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이 포괄되도록 건의하고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표준품셈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움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남동발전 등 감사·청렴 분야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허정환)는 최근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상임감사위원 백성원), 한전산업개발(상임감사 박일권)과 감사 및 청렴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감사 분야의 전문성과 특장점을 바탕으로 상호 간 업무교류를 활성화해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차·합동감사 운영 등 감사협력 △우수 감사사례 벤치마킹 및 감사제도 공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내부통제 운영 △이해충돌방지 점검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등 세부 방안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허정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각 기관의 활발한 업무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해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안전과 내부통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 해외진출 협력

美 보스턴서 거점 마련·공동사업 발굴... 전북 바이오산업 글로벌화 본격 가속

전북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센터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글로벌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태계를 갖춘 미국 보스턴 지역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현지 거점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추진된 미국 현지 협력의 실질적 후속 조치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자치도,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등이 CIC, BWH(브리검 여성병원), 메이요클리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내 바이오 협력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메이요클리닉 신경공학·장밀수술연구소장 켄달 리(Kendall Lee) 교수 등이 전북을 방문해 공동



연구개발 및 기업유치 방안을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 논의하며 협력이 심화되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CIC 내 전북 바이오기업 입주공간 조성 및 운영 협력, △산·학·연 연계 벤처카페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동 추진, △미국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공동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등을 협력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거점 기반' → '지역 간 연계 심화' →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협력 로드맵이 4~6월에 걸쳐 구체화되며,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본격 가속화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2.91% 씨드모아통장' 우대금리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인가률이 중인 파킹통장 '씨드모아 통장'의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씨드모아 통장은 일별잔액에 대해 2.2%(의) 높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이벤트

우대금리 연 0.71%를 더해 최고 연 2.91%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이벤트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신규가입 시 △마켓팅동의 0.3% △매일의 최종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0.41%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

또한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뺐 수 있으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증권계좌와 연동 통장으로 활용하거나, 직장인들의 생활비 통장으로 선택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책 논의 위한 선진사례 답사

도·도시재생지원센터, 사후관리지원 제도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지원 제도·정책을 논의하고,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중구의 선진사례를 19일과 20일 답사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이번 답사에는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 시·군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

19일에는 강화군 남산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 남영우(前센터장) 사업소장 및 거점공간 운영현황을 소개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사업팀 이두원 팀장이 인천광역시 거점시설 사후관리 제도정책 등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종석 화수정원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로 지정되기까지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하였고, 박상길 공간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이 거점시설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답사를 진행하였다.

20일에는 김아영 인더로컬협동조합 이사장이 인천광역시 중구의 로컬컨텐츠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 우수사례인 포다움128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상상플랫폼과 인천시민예집, 이음1977 등 개항거리를 투어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답사를 통해 타 지역의 거점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각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관계자의 역할분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